

농협 '1중앙회 2지주' 체제로 새출발

고성지역은 '농협은행 고성군지부' 로 명칭 변경 ... 농정지원단 지도경제사업 수행

농협중앙회가 지난 2일부터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금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및 농협금융지주 등 3개 조직 체계로 새출발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지난 1961년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통합으로 농협중앙회가 출범한지 51년만에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을 거느리는 '금융그룹'으로 변신해 KB·우리·신한·하나금융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중앙회의 변화에 따라 강원도 지역본부에는 중앙회 도 지역본부, 농협은행 영업본부, 농협생명 지역총국, 농협손해 지역총국 등 4개 조직으로 개편됐으며, 시군지부는 농정지원단과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 2개 조직으로 개편됐

다. 시군지부의 명칭은 농협은행이 승계해, 종전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의 명칭이 농협은행 고성군지부로 변경됐다.

농협은행 고성군지부장은 군 단위 농협을 대표해 자치단체 등 대외농정활동을 수행하고, 자치단체 금고관리를 포함한 금융업무를 수행한다. 농정지원단은 관내 농협에 대한 지도경제사업을 수행하고 농협은행 시군지부의 농정활동을 협력하고 지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신용부문 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농·축협과도 상호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농촌과 농업인보다 직원들을 위한 기업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천준욱 농협중앙회도 지역본부 고성군 농정지원단장은 "농협의 체제 변화는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농협으로



지난 2일 중앙회의 체제 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가 '농협은행 고성군지부' 로 이름을 바꾸고 새출발을 했다.

성장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기존에 해오던 농업 관련 사업은 유지하면서 신용사업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지역 농업과 농업인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

다"고 했다. 천단장은 또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중앙회가 책임 판매한다는 목표 아래 도매와 식품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조직으로 발전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환경보전·녹색성장 기여

미성환경,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



고성지역의 대표적인 종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전문업체인 미성환경(대표이사 남성연, 사진)이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지난달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미성환경은 환경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원주지방환경청장상을 받았다.

미성환경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재생골재 등을 만들어 인근 군부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친환경골재와 재생 아스팔트, 재생 콘크리트 등에 관련된 사업을 하며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고, 소음공해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최신식 습식 파쇄기 등 생산 설비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등 환경 분야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미성환경의 주요 사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콘크리트, 페아스콘, 임목, 폐목),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지정폐기물 철거업, 순환골재(25미리, 40미리, 석분, 토사) 생산판매업,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판매업, 폐합성수지처리업(어구, 어망, 그물등), 수집·운반업(장비임대업) 등이다.

남성연 대표이사는 "구성원 모두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오대벼 범씨 미소독 상태로 보급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 농기센터 농가별 소독요령 지도

지난해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 고성지역 농가에 보급한 오대벼 범씨의 발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립종자원이 올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소독을 하지 않은 범씨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은 "올해 공급할 오대벼에 대해 여러 차례 발아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한 종자의 발아율이 다소 떨어졌다"며 "올해에 한해 소독을 하지 않고 정선(먼지 등 이물질 제거)만 실시하고 미소독 상태로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대벼 외에 윤광벼 등은 소독후에 공급된다.

이에 따라 고성지역 농가마다 소독하지 않은 범씨가 보급된 가운데,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발생한 발아율 저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성군은 우선 각 농가에서는 30~32도의 물에 스포탁, 아리스위퍼 등의 약제를 희석한 후 망



지난해 정부가 보급한 오대벼 범씨의 발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

사주머니 등에 담은 범씨를 24~48시간 동안 물속에 넣어 두고, 소독이 끝난 후에 깨끗한 물에 2~3회 씻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범씨 소독용 적정 약제 사전 확보 및 희석배율, 소독방법 준수로 종자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소독방법 미준수시 발아가 지

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아울러 오대벼 미소독 종자 공급에 따른 소독요령 리플렛을 2천부 제작해 전 농가에 우편 발송하고, 오대벼 보급종의 포대 속에 안내문을 첨부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